

고내 뜻을 본향 역수는  
옛날에 제주도가  
탐라국으로 있을 때,  
우마와 각종 생산물이  
많이 풍성히 될 때,  
천주국에서  
짐통정장수를 시겨서  
탐라국을 돌아보라고  
보내였는디.  
짐통정장수가 와서 보니  
우마와 생산이 잘 낳니,  
그것을 욕심하고  
탐라국을 먹을랴고  
무류탕심하니.  
천주국이선 짐통정장수를  
잡을려고 삼장수를  
보내였습네다.  
천주국에서는  
황서따에 황서님  
을서따에 을서님.  
국서따에 국서님.  
삼장수가  
제주를 들어를 때에  
짐통정이는 토성으로  
만리를 끼였습네다.  
짐통정이는  
삼장수를 피흘랴고  
각 백성에게  
불체 닷되, 비 훈줄리를  
받아서,  
불체는 토성에 끌고  
비추록은 물꼴리에 돌아서  
물을 타고 성위를 돌렸습네다.  
성우에는 불체로 안개가  
탕천하니

삼장수는 가남을 못 헌였습네다.

그러나 최후에는 삼장수가

토성??지 닥쳐왔습네다.

토성이 높아지고

무쇠문은 증가서

들어가지 못하니.

어떠한 여생의 말을 듣고,

무쇠문에

석들 열흘 백일간을

불미를 헌니.

무쇠문이 녹아졌습네다.

삼장수가 성안에 들어갈 때,

짐통정이는 도망가게

되였습네다.

짐통정이 쳐는

유태를 그쳤는디.

짐통정이가 도망가멍.

“내가 엇이민 너도 죽나.

내 손으로 엇이 헌자.” 헌여,

처를 발로 밟고

손으로 둉겨 찢어

던져두고,

짐통정이는 무쇠방석을

물 모를, 추주 족골에 던져,

거기에 새위몸으로

변화되어

그 무쇠방석을

끌아앗았습네다.

그 뒤에

황서따에 황서님이

제비새가 되여 놀아가서

짐통정이

머리위에 앗고,

을서따에 을서님은

바당 새위가 되어서

그 무쇠방석을

잡아댕기고,

국서따에 국서님은

은장도를 받아들고,  
짐통정이 머리를  
흔드르는 순간에  
짐통정 목에 비늘이  
앗씩 들러져서,  
글로 목을 비였습네다.  
삼장수는  
천주국 상관에  
보고를 내여두고,  
보난.  
고내봉 북쪽으로 부려보난,  
요왕국 말줏뜰애기  
월궁녀 선녀가 있었습네다.  
삼장수는 이 선녀에 미쳐서  
고내 현 장소에  
좌정호였습네다.  
이 당 제일은.  
음력 정월 초 호를날  
팔월 보름날,  
일년에 일이기로  
두 번 제를 지냅네다.  
잘 위찬호민 행복을 주고,  
위찬에 부찰되면 악화를  
주는 신당입네다.

제일 1월 1일.

8월 15일.

<애월면 신엄리 남무 42세 양태옥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582-583.